

“적절한 시기 기준금리 인상 필요”... 금융불안 ‘주의단계’

한은 ‘금융안정보고서’

물가 압력 확대·경기 개선 전망 FSI 17.2, 주의단계 기준 웃돌아 FVI 46.0, 장기평균 45.7 상회 수도권 집값·가계빚 재누적 우려 주식관련 대출 등 레버리지 증가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 압력 확대와 경기 개선 전망,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레버리지 투자 증가로 금융불균형이 다시 누적될 가능성에는 경계감을 나타냈다.

한국은행은 24일 내놓은 ‘2026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실물경제 성장세 확대와 금융기관의 양호한 복원력, 대외지급능력을 바탕으로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한은은 “2025년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를 2.50%에서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물가 상승 압력 확대 및 경기 개선 전망, 금융안정 리스크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시스템의 단기 불안 상황을 나타내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지난 5월 17.2를 기록했다. 중동 상황 등의 영향으로 3~4월 상승한 뒤 다소 하락했지만 주의단계 기준인 12를 웃돌았고 지난해 12월 16.3보다도 높았다.



(왼쪽부터) 유재현 한국은행 국제기획부장, 이정연 금융안정기획부장, 장정수 부총재, 임광규 금융안정국장, 문용필 안정분석팀장이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6년 6월) 설명회에 참석했다. /한국은행

중장기적인 금융시스템 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올해 1분기 46.0으로 2008년 이후 장기평균인 45.7을 소폭 상회했다. 신용과 자산가격 등에 축적된 금융불균형이 다시 늘고 있다는 의미다.

임광규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FVI는 신용이나 자산가격에 쌓인 금융불균형의 축적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며 “현재 장기평균을 약간 상회하지만 최근 상승폭은 둔화하고 있어 시장금리 상승과 정부 규제 강화 등이 반영되면 오름세가 누그러지거나 하락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말 가계신용은 1993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5%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34.1%로 지난해 3분기 말 139.7%보다 낮아졌고 가계대출 연체율도 1.00%로 장기평균을 밑돌았다.

반면 취약차주 비중은 차주수 기준 6.7%로 지난해 3분기 말 6.4%보다 상승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증가 유예 종료로 앞두고 늘어난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

고 대출에 반영된 데다 주식 관련 기대대출 증가하면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은 9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장정수 한은 부총재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늘면서 가계부채 비율이 빠르게 하락한 것은 총량 리스크가 완화되는 긍정적인 부분”이라면서도 “주요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DSR과 취약차주 등 질적인 취약성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기업부문의 부실 위험도 지속됐다. 금융기관 기업대출은 1분기 말 197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늘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2.43%로 장기평균인 1.62%를 크게 웃돌았고 중소기업 이자보상배율은 -0.4배로 마이너스 상태를 이어갔다.

금융시장에서는 장기 시장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도 확대됐다. 주가는 반도체 업황 호조와 자본시장

제도 개선 기대에 힘입어 가파르게 올랐지만 변동성도 커졌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높아지며 매매가격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다.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과 유동성 대응 능력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높아지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지금이 순유출됐지만 외화조달 여건과 대외지급능력도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유재현 한은 국제기획부장은 “순대외채권 규모와 낮은 단기외채 비율,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외환보유액은 대외 충격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는 데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해 7월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광범위한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신용·레버리지 투자 75조 육박 조정 땀 하락폭·변동성 증폭

신용융자·미수 잔액 39.4조 레버리지 ETF 순자산 35.4조 조정 땀 강제매각으로 낙폭 확대 비차입 투자자까지 손실 번질 우려

주가 상승과 함께 신용융자·신용미수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시장 조정 시 투자 손실과 가격 변동성을 증폭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경고가 나왔다. 차입 투자가 늘면 빚을 내지 않은 투자자에게까지 손실이 전이되는 외부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 ‘2026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신용융자와 신용미수 잔액은 39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레버리지 ETF 순자산 총액도 35조4000억원까지 늘었다.

두 지표 모두 지난해 하반기 이후 빠르게 증가했다. 국내 주가가 반도체 업황 호조와 자본시장 제도 개선 기대 등에 힘입어 가파르게 상승하자 차입이나 레버리지 상품을 이용해 투자 수익률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확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사 신용융자뿐 아니라 캐피탈사 등에서 증권계좌를 담보로 주식 매입 자금을 빌리는 스타펀드도 늘었다. 스타펀드 잔액은 2024년 말 1조2000억원에서 올해 1월 말 1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가계의 기대대출도 지난해 4분기 이후

증가폭이 확대됐다. 올해 1분기 가계 기대대출은 전분기보다 4조8000억원 증가했고 은행 가계대출의 한도 소진율은 36.0%로 높아졌다. 기대대출에는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과 카드론, 보험계약대출 등이 포함된다. 한은은 늘어난 기대대출의 상당 부분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출을 이용한 주식투자가 주가 상승기에는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만 조정기에는 반대매매와 강제매각을 통해 하락폭을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용융자와 미수거래는 담보로 잡힌 주식 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의 임의매각이나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레버리지 ETF 역시 투자자의 매매가 늘거나 펀드가 목표 수익률 배수를 유지하기 위해 보유 포지션을 줄이면 주가 하락 방향으로 매매가 집중될 수 있다.

한은이 201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코스피가 전일보다 5% 이상 하락한 조정을 분석한 결과 평상시보다 레버리지 ETF 자금 순유출과 신용미수 반대매매가 주가 움직임과 더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정수 한은 부총재보는 “가격이 떨어질 때 반대매매를 통해 주식이 처분되면서 변동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대한민국 축구와 교보생명의 팀플레이는 계속됩니다

2002년부터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과
팀플레이를 펼쳐온 교보생명
2026년에도 함께합니다



*2002-2027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 공식파트너

대한민국 축구 곁에 든든하게 | KYOBO 교보생명